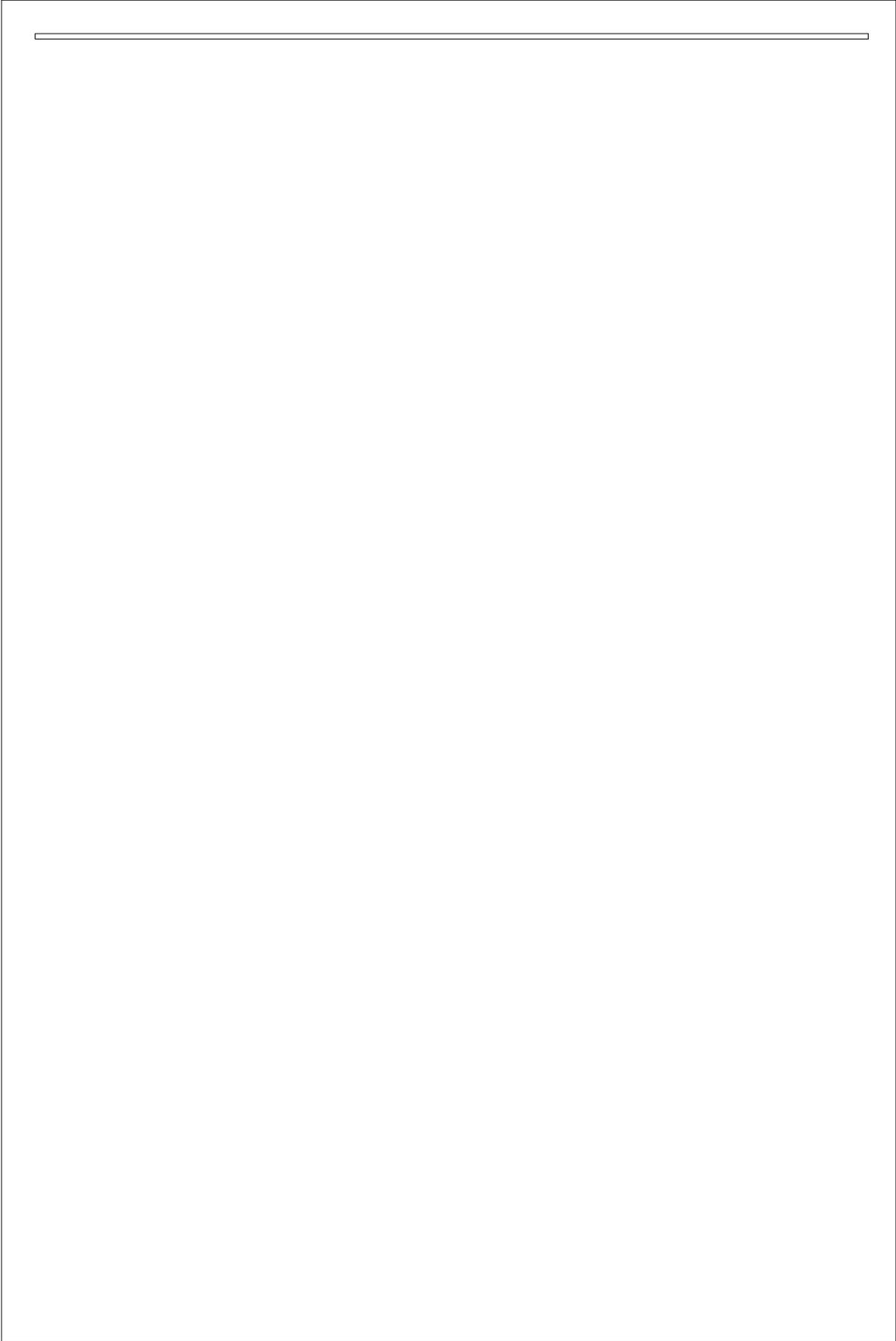


[국산T]

**2017 EBS 고전시가
미수록 부분 & 유사작품**

Orbi Class

[광릉한샘기숙학원]



수능특강 50P 한림별곡 미수록 부분 (제8장 중요)

- 1장 - 시부 - 시인과 문장 예찬/ 명문장과 금의의 문하생 찬양
- 2장 - 서적 - 학문과 독서에 대한 금지
- 3장 - 명필 - 유명한 서체와 필기구 등 명필 찬양 전주서, 과두서, 서수필
- 4장 - 명주 - 귀족 계급의 주홍과 풍류 송주예주, 앵무잔, 호박배, 유명도잠
- 5장 - 화훼 - 화원의 서경(경치)
- 6장 - 음악 - 흥겨운 주악 옥기향, 종지해금, 설원장고
- 7장 - 누각 - 후원의 서경(경치) 영주, 작작, 주렴반권, 전황앵
- 8장 - 추천 - 그네 뛰는 흥겨운 정경과 풍류 생활

[한림별곡 각 장 풀이]

【제3장】

眞卿書 飛白書 行書草書 / 篆籀書 蝌蚪書 虞書南書 / 羊鬚筆 鼠鬚筆 빗기드러
진경서 비백서 행서초서 련류서 과두서 우서남서 양수필 서수필
위 덕논 景 記 엇더하니잇고
吳生劉生 兩先生의 吳生劉生 兩先生의 / 위 走筆^ㅅ 景 記 엇더하니잇고
오싱류싱 량선싱 오싱류싱 량선싱 주필 경

● 현대어 풀이

안진경체. 비백체. 행서체. 초서체.

진나라 이사의 소전과 주나라 태사류의 대전의 서체. 올챙이 모양의 과두 서체. 우서와 남서.

양수염으로 맨 붓, 쥐수염으로 맨 붓들을 비스듬히 들고

아! 한 점을 찍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오생과 유생 두 분 선생님께서,

아! 붓을 거침없이 휘달려 그려 나가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주제 : 유명 서체와 명필 찬양

【제4장】

黃金酒 柏子酒 松酒醴酒 / 竹葉酒 梨花酒 五加皮酒 / 鸚鵡盞 琥珀盃에 7득브어
황금주 백조주 송주례주 독엽주 리화주 오류피주 앵무잔 호박배
위 勸上^ㅅ 景 記 엇더하니잇고
권상 경
(葉) 劉伶陶潛 兩仙翁의 劉伶陶潛 兩仙翁의 / 위 醉昏^ㅅ 景 記 엇더하니잇고

◎ 현대어 풀이

황금빛 도는 술.잣으로 빛은 술.술앞으로 빛은 술.그리고 단술.

땃앞으로 빛은 술.배꽃 필 무렵 빛은 술.오갈피로 담근 술.

앵무새 부리 모양의 자개껍질로 된 앵무잔과, 호박빛 도는 호박배에 술을 가득 부어,

권하여 올리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진나라 죽림칠현의 한 분인 유령과 도잠이야 두 분 신선같은 늙은이로,

아! 거나하게 취한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주제 : 상층 계급의 주흥(酒興)과 풍류

【제5장】

紅牡丹 白牡丹 丁紅牡丹 / 紅芍藥 白芍藥 丁紅芍藥 / 御柳玉梅 黃紫薔薇 芷芝冬柏

홍모단 백모단 덩홍모단 홍작약 백작약 덩홍작약 어류옥미 황조장미 지지동백
위 間發[^] 景 其 엇더하니잇고

간발 경

(엽)슴竹桃花 고운 두분 슴竹桃花 고운 두분 / 위 相映[^] 景 其 엇더하니잇고

합득도화 합득도화 상영 경

◎ 현대어 풀이

붉은 모란.흰 모란.질붉은 모란 / 붉은 작약.흰 작약.질붉은 작약

능수버들과 옥매, 노랑과 자주의 장미꽃.지란과 영지와 동백.

아! 어우러져 핀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합죽과 복숭아꽃 고운 두 숲에 담긴 자태가,

아! 서로 어리어 비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주제 : 온갖 꽃의 아름다움 찬양

【제6장】

阿陽琴 文卓笛 宗武中琴 / 帶御香 玉肌香 雙伽倻[^] 고 / 金善琵琶 宗智稽琴 薛原杖鼓

아양금 문탁덕 종무동금 디어향 옥기향 상개야 금선비파 종지희금 설원장고

위 過夜[^] 景 其 엇더하니잇고

과야 경

(葉) 一枝紅의 빛근 笛吹 一枝紅의 빛근 笛吹 / 위 듣고아 줌드러지라

일지홍

덕취 일지홍

덕취

● 현대어 풀이

아양이 튕기는 거문고.문탁이 부는 피리.종무가 부는 종금.

명기 대어향과, 최우의 애첩이요 명기인 옥기향 둘이 짝이 되어 뜯는 가얏고.

명수 김선이 타는 비파.종지가 켜는 해금.설원이 치는 장고.

아! 병축야유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명기 일지홍이 비껴대고 부는 멋진 피리 소리를,

아! 듣고야 잠들고 싶습니다.

● 주제 : 흥겨운 주악(奏樂)과 악기 소리의 아름다움

【제7장】

蓬萊山 方丈山 瀛洲三山 / 此三山 紅縷閣 婬妲仙子 / 綠髮額子 錦繡帳裏 珠簾半捲

봉리산 방당산 영주삼산 차삼산 홍류각 작약선주 록발익주 금슈당리 주렴반권

위 登望五湖[^] 景 그 엇더하니잇고

등망오호 경

(葉) 綠楊綠竹 栽亭畔애 綠楊綠竹 栽亭畔애 / 위 嚙黃鸝 반갑두세라

록양록죽 지정반 록양록죽 지정반 년황앵

● 현대어 풀이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의 삼신산 / 이 삼신산에 있는 홍류각의 미녀

가인이 금수휘장 속에서 구슬발을 반쯤 걸어올리고.

아! 높은 대에 올라 멀리 오호를 바라보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푸른 버드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심어진 정자가 있는 언덕에서,

아! 지저귀는 피꼬리가 반갑기도 하구려.

●주제 : 선경의 미녀와 피꼬리의 자태

【중요! 제8장】

唐唐唐 唐楸子 皂莢남괴 / 紅실로 紅글위 미요이다 /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하

당당당 당츄주 조합 흥 흥 텅소년

위 내가는 디 늑 갈세라

(葉) 削玉纖纖 雙手[^] 길헤 削玉纖纖 雙手[^] 길헤 / 위 携手同遊[^] 景 그 엇더하니잇고

삭옥섬섬 상슈 삭옥섬섬 상슈 휴슈동유 경

● 현대어 풀이

호두나무, 쥐엄나무에다 /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매었습니다

그네를 당기시라 미시라 왈자패인 정소년이여.

아!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구려.

마치 옥을 깎은 듯이 가녀린 아리따운 두 손길에,

아! 옥같은 손길 마주 잡고 노니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주제 : 그네뛰기의 즐거운 광경과 풍류 생활의 찬양 (순우리말 표현이 많음)

수능특강 54P '어부단가' 유사작품 엮어 읽기 (윤선도 어부사시사)

春詞(춘사)

1.

압개에 안개 짓고 뒷뒤희 희 비친다
비떠라 비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至지芻國憲총 至지芻國憲총 於어思사臥와
江강村촌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앞 갯벌에 안개 걷히고 뒷 뒤희 해 비친다
배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강촌에 온갓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2.

날이 덩도다 물 우희 고기 떨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굴며기 들식 세식 오락가락 흐는고야
至지芻國憲총 至지芻國憲총 於어思사臥와
낚대는 쥐여 있다 濁탁酒주人瓶병 시릿느냐

날이 덩도다 물 위에 고기 떴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갈매기 들씩 셋씩 오락가락 하는고나
낚대는 쥐여 있다 탁주병 실었느냐

3

東동風풍이 건든 부니 물결이 고이 닐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東동湖호를 도라보며 西서湖호로 가자스라
至지芻國憲총 至지芻國憲총 於어思사臥와
압뒤희 디나가고 뒷뒤희 나아온다

동풍이 건든 부니 물결이 고이 인다

뭇 달아라 뭇 달아라
동호를 돌아보고 서호로 가자꾸나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다가온다

4

우는 거시 벉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숲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 들락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뒤노는다

우는 것이 빠꾸긴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
맑아한 깊은 소에 온갓 고기 뛰논다

5

고운 별티 쪼얀는디 물결이 기름긷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두랴 낚시를 노홀일가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濯탁纓영歌가의 興흥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고운 별 쪼였는데 물결이 기름같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던져둘까 낚시를 놓으리까
탁영가¹⁾의 흥이 나니 고기도 잊었도다.

6

夕석陽양이 빗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자
돈디여라 돈디여라
岸안柳류汀汀화화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三삼公공을 불리소냐 萬만事스를 생각하랴

석양이 비겼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1) <어부사>에 있는 노래. '탁영'은 갓끈을 씻는다는 뜻임.

뭇 지어라 뭇 지어라
버들이며 물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정승을 부러워할소냐 세상만사 생각하라

7

防芳草초를 불와 보며 蘭난표지도 뜨더보자
비세여라 비세여라
一일葉엽片편舟주에 시른 거시 므스것고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갈 제는 너뿐이오 올 제는 둘이로다

꽃풀을 바라보며 난초 영지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갈 때는 나 뿐이오 올 때는 달이로다

8

醉취하야 누언다가 여흘 아래 누리려다
비미여라 비미여라
落락紅홍이 흘러오니 桃도源원이 갓갓도다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人인世世紅홍塵塵이 언메나 可러느니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려가련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붉은 꽃이 흘러오니 무릉도원 가깝도다
세상의 티끌이 얼마나 가렸는고

9

낙시줄 거더노코 蓬봉窓창의 달을 보자
달디여라 달디여라
흐마 밤들거나 子조規규소리 몹게 난다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나쁜 興흥이 無무窮궁하니 갈 길흘 니젓맛다

낙시줄 걸어 놓고 봉창의 달을 보자
뭇 지어라 뭇 지어라

하마 밤 들었나 두견이 소리 맑게 난다
남은 흥이 무궁하니 갈 길을 잊어도다

10.

來리日일이 또 업스라 봄밤이 몇덜새리
비브터라 비브터라
낮대로 막대삼고 柴식扉비를 촌자보자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漁어父부生生涯애는 이렁구러 디널로다

내일이 또 없으랴 봄밤이 얼마 만에 새리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냇숫대로 막대 삼고 사립문 찾아보자
어부의 생애는 이렁구러 지내도다

하사(賀詞)

1.

구즌 비 머저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비떠라 비떠라
낮대를 두러메니 기쁜 興흥을 禁금 못 할되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煙연江강疊疊嶂장²⁾은 杼라셔 그려넨고

곳은비 몇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떠라 배떠라
냇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금치 못할러라
안개 강 첩첩 봉우리는 杼라셔 그려넨고.

2.

년 淸淸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달드러라 달드러라
靑靑 蕩약笠립은 淸淸노라 綠綠 蓑사依의³⁾ 가져오냐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흔 白白 駒구는 내 淸淸가 제 淸淸가

2) (煙江疊嶂) : 안개강과 첩첩이 둘러 산

3) 색의 도롱이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랑 장만마라
땃 들어라 땃 들어라
대삿갓은 써 있노라 도롱이 가져오나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저를 쫓는가

3.

마람⁴⁾ 님희 바람나니篷봉窓창이 서늘코야
돋드라라 돋드라라
녀름바람 덩흠소냐 가는 대로 비시켜라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北북浦포南남江강 이 어디 아니 도흘러니

마름 앞에 바람나니 봉창이 서늘하구나
땃 달아라 땃 달아라
여름 바람이 일정할소냐 가는대로 비 맡겨 두어라
북포구 남강이 어디 아니 좋을런가.

4.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엇더허리
이어라 이어라
뭇오江강⁵⁾의 가자허니 千천年년怒노濤도 슬플로다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楚초江강의 가자 허니 漁어腹복忠통混혼⁶⁾ 날글세라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은 들 어떠하리
이어라 이어라
오강에 가자하니 오자서 원혼 슬프도다
초강에 가자하니 굴원의 충혼 혹 님을라.

5.

萬만柳류綠녹陰음 어린 고대 一일便편苔터磯기 奇기特특하다
이어라 이어라

4) : 풀 이름

5) 오강 : 오자서가 참소를 당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사인(舍人)에게 “내 눈을 빼어 오의 동문에 걸어 월이 쳐 들어와 오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했는데 부차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자서의 시체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 강에 버리게 하니, 노도가 일고 후에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했다는 고사.

6) 초의 굴원이 회왕을 섬겼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떡리수에 빠져 죽은 충혼. 물에 빠져 죽었다 하여 고기 비 속의 충성심이라 함.

드리에 다 듣거든 漁人인爭鬪渡도⁷⁾ 허물마라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鶴학髮발老로翁옹 만나거든 雷뢰澤택讓양居거⁸⁾ 效효側측하자

버들 푸르게 어린 곳에 이끼 낀 돌 하나 참 좋구나
이어라 이어라
다리에 다다르거든 어부들 건넌다툼 허물마라
센 늙은이 만나거든 뇌택의 자리양보 본을 받자

6.
긴 날이 저르는 줄 興흥의 미쳐 모르도다
돌디여라 돌디여라
빛대를 두드리고 水슈調調歌가⁹⁾를 불러 보자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欸애乃내聲성¹⁰⁾中중에 萬만古고心심을 그 뉘알고

긴 날이 저무는 줄 흥에 미쳐 몰랐도다
돛 지어라 돛 지어라
돛대를 두드리며 수조가를 불러보자
애내성 소리에 만고 수심을 누가 알고

7 .
夕석陽양이 도타마는 黃황昏昏이 갓갓거다
비세여라 비세여라
바회 우희 에구븐 길 솔 아래 빗겨 있다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碧벽樹슈鶯앵聲성¹¹⁾이 곧곧이 들리느다

석양이 좋다만은 황혼이 가깝도다
배 세워라 배 세워라
바위 위 에굽은 길 소 아래 비껴 있다
나무에 꺾꼬리 소리 곳곳에 들리는구나.

7) : 낚시꾼들이 다투어 건넌

8) 뇌택양거 : 순입금이 뇌택에서 고기를 낚을때에 그곳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양보했다는 고사

9) 수조가 : 수양제가 만든 노래

10) 애내성 : 노젓는 소리

11) 벽수앵성 : 파란 나무에 꺾꼬리 소리

8.

물괘 우희 그물 넣고 돛¹²⁾ 미퓌 누어 쉬자
비매어라 비매어라
모괴를 뭇다 흐랴 蒼蒼蠅승과 엇더하니
至지匆국憲총 至지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다만 한 근심은 桑上大大夫부 드르려다

모래 위에 그물 넣고 배 지붕 뚝 밑에 누워 쉬자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모기를 뭇다 하랴 쉬파리와 어떠한가
다만지 한 근심은 상흥양이 들을라

9.

밤 스이 風풍浪낭을 미리 어이 짐작하리
닫디여라 닫디여라
夜야渡도橫횡舟舟¹³⁾를 뉘라셔 닐릿논고
至지匆국憲총 至지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澗간邊변幽유草초도 眞진實실로 어연브다

밤 사이 풍낭을 미리 어이 짐작하리
닫 지어라 닫 지어라
나룻터 빈 배를 그 누가 말했던고
계곡에 향기풀이 진실로 어여쁘다.

10.

蝸와室실¹⁴⁾을 바라보니 白백雲운이 둘러있다
비붓터라 비붓터라
부들부채 가라 쥐고 石석逕徑으로 올라가자
至지匆국憲총 至지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漁어翁翁이 閑한暇가터냐 이거시 구실이라

조막집 바라보니 백운이 둘러 있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부들 부채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12) : 배의 지붕

13) 야도횡주 : 들 가운데 있는 내의 건널목엔 빈 배만 매어 있음

14) 와실 : 달팽이 집. 자신의 작은 집을 이룸

추사(秋詞)

1.

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夫부生싱涯이 아니러나
비떠라 비떠라
漁어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四스時시興흥이 흥가지나 秋추江강이 음듬이라

세상 밖에 좋은 일이 어부 생애 아니더냐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부들 부채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2.

水슈國국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꺀지 容용與여호자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人인間간을 도랴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물나라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있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만이랑 맑은 파도에 실컷 안겨 보자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3.

白백雲운이 니러나고 나무 굿티 흐느킨다
돈드라라 돈드라라
밀물의 西서湖호 | 오 혈물의 洞동湖호가자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白백蘋빈紅홍蓼료는 곳마다 景경이로다

흰 구름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흐느낀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밀물에 서호요 썰물에 동호가자

흰 마름 붉은 여뀌는 곳마다 경치로다.

4.

그러기 떳는 박괴 못 보던 뉘 보느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허려니와 趣취흔 거시 이 興흥이라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夕석陽양이 브이니 天천山산이 金금繡슈 | 로다

기러기 떳는 밖에 못보던 뉘 보이는구나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하려니와 얻는 것은 흥이로다
성양이 눈부시니 온갓 산이 금수로다.

5.

銀은脣순玉옥尺척이 몇치나 걸런느니
이어라 이어라
蘆로花화의 불부러 곱히야 구어 노코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딜병을 거후리혀 박구기에¹⁵⁾ 브어 다고

흰 아가미 큰 고기들이 몇이나 걸렸는고
이어라 이어라
갈꽃에 불 붙어 골라서 구어 놓고
질병을 기을여서 박구기에 부어다오.

6.

넙바람이 고이 부니 드론 돌괴 도라와다
돈디여라 돈디여라
瞑명色식은 나아오디 淸淸興흥은 머리 인다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紅홍樹슈 淸淸江강이 슬미디도 아니한다

옆바람이 고이 부니 다른 돛자리에 돌아왔다
돛 지어라 돛 지어라
어스름은 다가오되 맑은 흥은 멀었구나

15)

단풍잎 맑은 강이 물리지도 아니한다.

7.

흰 이슬 빈견논디 불근 돌 도다온다
비세여라 비세여라
鳳봉鳳황樓루 渺杳然연하니 淸淸光광을 놀을 즐고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玉옥兎토의 띠는 藥약을 豪호客객을 먹이고자

흰 이슬 내렸는데 밝은 달 돌아온다
배 세워라 배 세워라
봉황루 아득하니 맑은 빛을 누굴 즐고
옥토끼 짙는 약을 호걸을 먹이고 싶구나.

8.

乾건坤곤이 제곰인가 이거시 어드메오
비매여라 비매여라
西서風풍塵딘 묻미츠니 부체하야 머엇하리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드론 말이 업서시니 귀시서 머엇하리

건곤이 제가곰 뭇인가 이것이 어디멘고
배 매어라 매 매어라
서풍 먼지 못 오는데 부채하여 무엇하리
들은 말 없었으니 귀 씻어서 무엇하리.

9.

옷 우희 서리오디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달디여라 달디여라
釣釣船선이 좁다 하나 浮부說세과 얻더하니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스臥와
내일도 이리 하고 모뢰도 이리 하자

옷 위에 서리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구나
땃 지어라 땃 지어라
낚싯배 좁다 하나 뜬 세상과 어떠한가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10.

松송間간石석室실의 가 曉효月월을 보자 하니
비브터라 비브터라
空공山산落락葉엽의 길흙 엇디 아라불고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白백雲운이 좃차오니 女녀蘿라依의 무겁고야

솔 사이 석실에 가서 새벽달을 보자 하나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빈 산 낙엽에 길을 어찌 알아볼꼬
백운이 따라오니 걸친 옷이 무겁구나.

동사(冬飢)

1.

구름 거둔 후의 힘빚치 두텁거다
비떠라 비떠라
天텢地디閉폐塞식 호디 바다흔 依의舊구 한다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꺾업슨 물결이 김편 듯 하여있다

구름 걷은 후에 햇빛이 두텁구나
배 떠라 배 떠라
천지 막혔으나 바다는 그대로구나
가없는 물결이 비단을 편 듯 하여 있다.

2.

주대 다스리고 빗밥¹⁶⁾을 박았느냐
닫드러라 닫드러라
瀟쇼湘상洞동庭庭은 그물이 언다 한다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이때예 漁어釣釣하기 이만한 디 업도다

낚대 챙기고 뱃밥은 박았느냐
닫 들어라 닫 들어라

16) 박는 물꼬

소상강이며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 한다
이때에 고기잡기 이만한 데 없도다.

3.

여튼 갯 고기들히 먼 소히 다 갯느니
돋다라라 돋다라라
저근덜 날 도흔 제 바탕의 나가보자
至지窠國憲총 至지窠國憲총 於어思사臥와
밧기 곧¹⁷⁾ 다오면 굴근 고기 문다 한다

열은 갯벌 고기들이 먼 소에 다 갔으니
돛 달아라 돛 달아라
잠깐 날 좋은 때 바다에 나가 보자
미끼가 좋으면 굶은 고기 문다 한다.

4.

간밤의 눈갯 後후에 景경物물이 달랑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만頃경琉류璃리 뒤희는 天천疊疊玉옥山산
至지窠國憲총 至지窠國憲총 於어思사臥와
仙선界계니가 佛불界계니가 人人間간이 아니로다

간밤의 눈 갯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앞에는 유리 바다 뒤에는 첩첩 흰 산
신선 땅 부처 땅인가 인간은 아니로다.

5.

그물 낚시 니저 두고 빗전을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압개를 건너고자 먼 번이나 헤여본고
至지窠國憲총 至지窠國憲총 於어思사臥와
無무端단흔 된브람이 헝혀 아니 부러올까

그물 낚시 잊어두고 빗전을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17) 곧 : 미끼만

앞 갯벌 건너고자 몇 번이나 헤아려 본고
무단한 된바람이 행여 아니 불어올까.

6.

자라가는 가마귀 먼날치 디나거니
돋디여라 돋디여라
압길히 어두우니 暮모雪설이 자자덜다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鵝아鴨압池¹⁸⁾를 닦터서 草초木목斬참을 심돋던고

자러가는 까마귀 몇 마리 지나갔느냐
뚝 지어라 뚝 지어라
앞길이 어두우니 저녁눈이 자옥하다
아압지를 주가 쳐서 부끄러움 씻었던가

7.

丹단崖애翠취벽벽이 畫화屏屏 곧티 들렀는데
비세여라 비세여라
巨거口구細세鱗린을 낚그나 몬 낚그나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孤고舟舟蓑사笠립에 興흥계워 안잣노라

붉은 암벽 푸른 암벽 그림병풍같이 들렀는데
배 세워라 배 세워라
큰 주둥이 가는 비늘 낚으나 못 낚으나
외론 배 사립에 흥겨워 앉았노라.

8.

물그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하고
비매여라 비매여라
머흔 구름 恨恨티 마라 世世上상을 7리온다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波파浪랑聲성을 厭厭티 마라 塵塵暄暄을 막는또다

물가에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하고

18) : 당나라 때에 오원제가 회서에서 난을 일으키매, 이소가 설야에 채성을 칠때 오리떼를 놀라게 해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이용해 성을 함락시켰다는 뜻.

배 메어라 배 메어라
험한 구름 한하지 마라 세상을 가려준다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티끌과 시끌 막는도다.

9.

滄창州쥬뫼오道도를 네브터 날런더라
달디여라 달디여라
七칠리리 여흘 羊양피피 옷¹⁹⁾슨 그 얻더 ㅎ니런고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三삼千천六륙白백 낙시질은 손 고븐 제 엇디턴고

창주 우리 도를 예부터 일렀더라
땃 지어라 땃 지어라
칠리탄에 양피 옷 사람 그 어떤 사람이런가
십년간 뉘시질은 손꼽아 볼 때 어떠하던가.

10.

어와 저므러간다 寔연息식이 만당토다
비붓터라 비붓터라
7는 눈 뿌린 길 불근 곳 훗더딘 디 흥치며 거러가서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雪설月월이 西셔峰봉의 넘도록 松송窓창을 비겨 잇자

어와 저물어 간다. 잔치함이 마땅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치며 걸어가서
눈 속에 달이 서산에 넘도록 창에 술을 비껴 잇자.

해석참고 - 연강 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시조2, 박을수 역주

19) 여흘 양피 옷 : 엄자룽이 양피옷을 입고 칠리탄에서 뉘시질을 했다던 고사

수능특강 63P '속미인곡' 엮어읽기 (사미인곡)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 몸이 태어날 때에 님을 따라 태어나니,

혼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한평생 함께 살아 갈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꺾이니,
나는 오직 짝이 있고 님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다.

▶ 임곡의 인연

平生(평생)에 願(원)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평생에 원하되 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늪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늪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엇그제 님을 피서 廣寒殿(광한뎌)의 올랐더니,
엇그제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궁궐)에 올라 있었더니,

그더디 엇디호야 下界(하계)에 느려오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창평)에 내려 왔느냐.

을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年(삼년)이라.
내려올 때에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일세.

臙脂粉(연지분) 잇네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연지와 분이 잇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꼬?

마음의 락친 실음 疊疊(텃텃)이 빠져 이서,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오 디나니 눈물이라.
짓는 것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人生(인칭)은 有限(유한)호디 시름도 그지업다.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 이별 후의 그리움

無心(무심)호 歲月(세월)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가는구나.

炎涼(염양)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뀜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 세월의 무상함

서사 -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窓(창) 밖기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띄었구나.

又(또) 冷淡(냉담)한디 暗香(암향)은 무슨 일고,
가뜩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이고?

黃昏(황혼)의 달이 조차 벼 마티 빗치니,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느껴 우는 듯, 반가워 하는 듯 하니,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花(미화) 짓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저 매화를 꺾어 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꼬?

▶ 춘원春怨 - 매화를 꺾어 입에게 보내 드리고 싶은

꽃디고 새 녀 나니 綠陰(녹음)이 질렸는디,
꽃잎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우겨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羅幃(나위) 寂寞(적막)하고, 繡幕(슈막)이 뷔여 있다
(님이 없어)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텅 비어 있다

芙蓉(부용)을 거더 노코, 孔雀(공작)을 둘러 두니,
부용꽃 무늬가 있는 병풍을 걸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 두니,

又(또)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지루하게) 기뻐던고?

駕鸞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색선) 풀터 내여,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희 견화 이셔 님의 옷 지여 내니,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만들어 내니,

手品(슈품)은 ㄴ니와 制度(제도)도 ㄴ줄시고,
숨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珊瑚樹(산호수) 지게 우희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그 옷을) 담아 얹어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님에게 보내려고 님계신 곳을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千里 萬里(천리 만리) 길흘 뉘라셔 츠자갈고.
천만리나 되는 먼길을 누가 찾아갈꼬?

니거든 여려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가거든 (이 함을)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 하실까?

▶ 하원夏怨 - 임에 대한 애틋한 정성

흐릿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뉘 제,
하룻밤 사이 서리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危樓(위루)에 혼자 올라 水晶簾(슈정렴) 거든말이,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 발을 걷으니,

東山(동산)의 돌이 나고, 北極(북극)의 별이 뵈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님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청광)을 쥐어 내어 鳳凰樓(봉황누)의 붓티고져.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님이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樓(누) 우회 거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취어,
(그러면 님께서는 그것을)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

深山窮谷(심산궁곡)을 점나뉘티 덩그쇼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 추원秋怨 - 선정을 갈망함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하야 白雪(백설)이 흐 빗친 제,
천지가 겨울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

사람은 ㄴ니와 놀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날아다니지 않는다.

蕭湘南畔(소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따뜻한 곳이라 하는) 소상강 남쪽 둔덕(전남 창평)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玉樓高處(옥누고처)야 더욱 닐러 뜨스흔리.
하물며 북쪽 임 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陽春(양춘)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따뜻한 봄기운을(부채로)부쳐내어 님계신 곳에 쇄게 하고 싶다.

茅簷(모첨) 비취 히를 玉樓(옥누)의 올리고져.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님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紅裳(홍상)을 니미 츄고, 翠袖(취슈)를 半(반)만 거더,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올려,

日暮脩竹(일모슈독)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해는 저물었는데 미미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것저것 생각함이 많기도 많구나.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뜻뜻이 앓아,

靑燈(청등) 거른 것티 鈿空篋(뎨공후) 노하 두고,
청사초롱을 걸어 둔 옆에 자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아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꿈에나 님을 보려고 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鶯錦(양금)도 츄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쉰고.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아, 이렇게 홀로 외로이 지내는)이 밤은 언제나 쉰꼬?

▶ 동원冬怨 - 임에 대한 염려

본사 - 임을 그리는 마음

흐릿도 열 두 새 흔 들도 설흔 날,
하루도 열두 때, 한달도 서른 날,

저근덧 심각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잠시라도 님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잊으려 해도

막음의 띠쳐 이셔 骨髓(골슈)의 깨터시니,
마음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하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라.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모 가지마다 간딤 족족 안니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고 다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뜨리라.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으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님께셔야(그 범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결사 - 변함 없는 충성심

수능특강 67P '규원가' 미수록 부분

(중략부분)

도로혀 풀쳐 혜니 이리혀여 어이혀리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거문고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츠 섯거 타니,
근심, 걱정을 달래니

소상야우(蘇湘野雨)의 댓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 거문고 연주 소리가 너무 슬프고 처량함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넷 소래 잇다마는
아녀자의 손 숨씨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히니 뉘 귀에 들릴소니.
들어줄 입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비구비 쓴쳐서라.

[독수공방의 외로움]

수능특강 71P '선상탄' 미수록 부분

(중략부분)

이런 일 보견대, 배 삼긴 제도(制度)야
만든

지묘(至妙)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 지극히 묘한 듯 하다마는 어찌된 우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빛기 타고,
→ 나는 듯이 빠른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임풍영월(臨風咏月)허되 흥(興)이 전혀 없는 것인가.
바람과 달을 보며 시를 짓고 놀

석일(昔日) 선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 옛날 배 안에는 술상이 어지럽더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장창(大劍長鎗)뿐이로다.
→ 금일 배 안에는 큰칼과 긴 창뿐이로다.

한 가지 배이건마는 가진 바가 다르니,
→ 배는 한가지인데 지니 바가 다르니 그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 사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수능특강 73P '연행가(燕行歌)' 미수록 부분

집집이 호인들은 길의 나와 구경하니, 사신 일행에 대한 호기심.

집집마다 만주 사람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의복기 괴려하여 처음 보기 놀랍도다. 옷차림에 대한 놀람.

옷차림이 괴이하여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머리는 압흘 싹가 뒤만 싹하 느리쳐서 변발.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깎아 늘어뜨려

당스실노 당기하고 말익이을 놀너 쓰며,

당사실로 땡기를 드리고 마래기라는 모자를 놀러 쓰며.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 한 번 아니하여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질 한 번도 아니하여

이 썰은 황금ियो 손톱은 다섯 치라. 문화적 편견,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감.

호인에 대한 멸시, 조롱. 대구, 은유, 과장, 반어법.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나 된다.

⇒ **청나라 거리와 사신단을 구경하는 호인들의 모습**

[거문빚 저구리는 깃 업시 지어쓰되, 옷깃.

검은빚의 저고리는 깃이 없이 지었으되,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초 다라 입어쓰며,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추 달아 입었으며,

아청 바지 반물 속것 허리씩로 놀너 미고,

검푸른 바지와 짙은 남빛 속옷 허리띠로 놀러 매고

두 다리의 횡전 모양 타오구라 일흠 하여,

두 다리에 횡전 모양으로 맨 것을 타오구라 이름하여

회목의셔 오금싸지 회미하게 드리 씨고

발목에서 오금까지 가뜩하게 들이끼우고

깃 업슨 청두루막기 단초가 여러히요,

깃 없는 푸른 두루마기 단추가 여럿이요,

좁은 슝미 손등 덤허 손이 겨오 드나들고,

좁은 소매가 손등을 덮어 손이 겨우 드러 들고

두루막 위에 배자이며 무릎 위에 슬갑이라. [] : 객관적 묘사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 위에 입던 옷.

두루마기 위에 덧저고리 입고 무릎 위에는 슬갑이라.

⇒ 호인들의 의복 제도

(중략)

발 밭시를 볼작시면 수당허를 신어시며,

발 맵시를 볼 것 같으면 수를 놓은 당혜를 신었으며,

청여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곱트나,

청나라 여자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같이 생겼으나,

당여는 발이 작아 두 치짐 되는 거술 대구, 과장

한족의 여자는 발이 작아 두 치(약 6센티미터)쯤 되는 것을

비단으로 꼭 동히고 신 뒤축의 굽을 달아, 전족 풍습.

비단으로 꼭 동이고 신뒤축에 굽을 달아

위둑비둑 가는 모양 너머질가 워터하다.

뒤뚱뒤뚱 가는 모양이 넘어질까 위태롭다.

그러타고 웃지 마라. 명나라 씨친 제도

그렇다고 웃지 마라. 명나라가 남긴 제도

저 계집의 발 한 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친명반청의 사고, 당시 사대부들의 인식 반영.

저 계집의 발 한 가지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 중국 여인네의 모습

(중략)

하쳐라고 촛조가니 집 제도가 우습도다

유숙하는 곳이라 하여 찾아가니, 집의 구조가 우습도다.

오량각 이 간통에 벽돌을 곱게 깔고

들보가 다섯이나 되는 큰 집의 가운데 통로에 벽돌을 곱게 깔고

반간식 칸을 지어 좌우로 ㄷ!칸하니.

반 칸씩 칸(화덕)을 지어 좌우로 마주보게 하였다.

칸 모양이 엇더터냐 칸 제도를 못 보거든

중국식 온돌인 칸의 모양은 어떠한가? 칸의 모양을 못 본 사람을 위해 말해보자면

우리 나라 붓두막이 그와 거의 흡사하여 '칸'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

우리나라의 부뚜막이 중국의 칸과 비슷하다.

그 멧히 구들 노코 불을 씨게 마련하고,

그 밑에 방구들을 놓고 불을 때게 만들어 놓고

그 우히 쯤리 펴고 밤이면 누어 쯤며

그 위에다 자리를 깔고 밤이면 누워서 잠을 자며

낮이면 손님 접다 걸터앉기 가장 쯤코, 안성맞춤

낮에는 여기에서 손님 대접을 하고, 또 걸터앉기에 가장 좋다.

치유힌은 완쯤창과 면회히은 벽돌담은

기름칠을 한 완자창과 회를 바른 벽돌담은

미천히 호인들도 집치레 과람코나.

미천한 중국인들 치고는 집 치장이 지나치구나.

⇒ 중국의 집 구조

수능특강 80P '농가월령가' 미수록 부분 (정월령)

정월(正月)은 맹춘(孟春)이라 입춘(立春) 우수(雨水) 절후(節候)로다.

1월은 초봄이라 입춘, 우수의 절기로다.

산중 간학(山中澗壑) 빙설(冰雪)은 남아시나

산 속 골짜기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 있으나,

평교(平郊) 광야(廣野)의 운물(雲物)이 변(變)하도다.

넓은 들과 벌판에는 경치가 변하기 시작하도다.

⇒ **정월의 절기 소개**

어와 우리 성상(聖上) 애민중농(愛民中農) 하오시니

어와, 우리 임금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시어,

간측(懇側)하신 권농륜음(勸農淪音) 방곡(坊曲)에 반포(頒布)하니

농사를 권장하시는 말씀을 방방곡곡에 알리시니,

슬프다 농부(農夫)들이 아무리 무지(無知)하들

슬프다 농부들이여. 아무리 무지하다고 한들

네 몸 이해(利害) 고사(姑捨)하고 성의(聖意)를 어길소냐

네 자신의 이해 관계를 제쳐놓고라도 임금님의 뜻을 어기겠느냐?

산전 수답(山田 水畝) 상반(相半)하고 힘더로 하오리라.

밭과 논을 반반씩 균형 있게 힘대로 하오리라.

일년 풍흉(豊凶)은 측량(測量)치 못하야도

일 년의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지는 못한다 해도

인력(人力)이 극진(極盡)하면 천재(天災)를 면(免)하느니

사람의 힘을 다 쏟으면 자연의 재앙을 면하느니,

제 각각(各各) 권면(勸勉)하야 게을리 구지 마라. 명령형 어미 사용. 설득과 교훈의 의도.

제 각각 서로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 **농사일에 힘쓰도록 권면함**

일년지계 재춘(一年之計 在春)하니 범사(凡事)를 미리 하라.

일 년의 계획은 봄에 하는 것이니 모든 일을 미리 하라.

봄에 만일 실시(失時)하면 종년(終年) 이리 낭패되네.

만약 봄에 때를 놓치면 해를 마칠 때까지 일이 낭패되네.

농지(農地)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피 먹여,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를 잘 보살피서.

지거름 지와 노코 일변(一邊)으로 시러 닦여,

재거름을 재워 놓고 한편으로 실어 내어,

맥전(麥田)에 오좁두기 세전(歲前)보다 힘써 하소.

보리밭에 오좁 주기를 세전보다 힘써 하소.

늪으니 근력(勤力) 업고 힘든 일은 못 하야도,

늪으니 기운이 없어 힘든 일은 못 하여도,

낮이면 이영 녀고 밤의는 식기 쏘아

낮이면 이영을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

씨 맞춰 집 니우니 큰 근심 더럿도다.

때맞추어 지봉을 이니 큰 근심을 덜었도다.

실과(實果) 나모 벗꽃 싸고 가지 슯이 돌 씨우기,

과일 나무 보굿을 벗겨 내고 가지 사이에 돌 끼우기,

정조(正朝)날 미명시(未明時)의 시험(試驗)조로 하야 보소. 청유형, 실천 촉구.

정월 초하룻날 날이 밝기 전에 시험삼아 하여 보소.

며나리 닛디 말고 송국주(松菊酒) 밋혀라.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송국주를 빚어라.

삼춘 백화시(三春百花時)의 화전 일취(花前一醉)하야 보즈.

온갖 꽃이 만발한 봄에 화전을 안주 삼아 한번 취해 보자.

⇒ 정월의 농사일

상원(上元)날 달을 보아 수한(水旱)을 안다 하니,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아 그 해의 흉수와 가뭄을 안다 하니,
노농(老農)의 징험(徵驗)이라 대강은 짐작(斟酌)하니.
 농사짓는 노인의 경험이라 대강은 짐작하네.
정초(正初)에 세배(歲拜)하든 돈후(敦厚)한 풍속(風俗)이라.
 정월 초하룻날 세배하는 것은 인정이 두터운 풍속이라.
시 의복(衣服) 떨쳐 입고 친척(親戚) 인인(隣人) 서로 찻조
 새 옷을 떨쳐 입고 친척과 이웃을 서로 찾아,
노소(老少) 남녀(男女) 아동(兒童)까지 삼삼오오(三三五五) 단일 적의
 남녀 노소 아이들까지 몇 사람씩 태를 지어 다닐 적에,
와각 버석 울긋불긋 물면(物色)이 변화(繁華)하다. 감각적.
 설빔 새 옷이 와삭버석거리고 울긋불긋하여 빛깔이 화려하다.
산나히 연(鰲) 씹오고 계집아히 널 뛰고,
 남자는 연을 띄우고 여자애들은 널을 뛰고,
늦노라 나기하기 소년(少年)들의 노리рода.
 윷을 놀아 내기하기 소년들의 놀이로다.
사당(祠堂)에 세알(歲謁)하니 병탕(餅湯)의 주과(酒果)로다.
 설날 사당에 인사를 드리니 떡국과 술과 과일이 재물이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어엄의 껌드리면,
 엄파와 미나리를 무 썩에다 곁들이면
보기의 신신(新新)하야 오신채(五辛菜) 불워하라
 보기에 새롭고 싱싱하니 오신채를 부러워하겠는가?
보름날 약식(藥食) 다례(茶禮) 신라(新羅)적 풍속(風俗)이라.
 보름날 약밥을 지어 먹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신라 때의 풍속이라.
묵은 산채(山菜) 살마니여 육미(肉味)를 밧골소나.
 지난 해에 캐어 말린 산나물을 삶아서 무쳐 내니 고기맛과 바꾸겠는가?
귀 밝히는 약(藥)술이며 부름 속는 생울(生粟)이라.
 귀 밝으라고 마시는 약술이며, 부스럼 삭으라고 먹는 생밤이라.
먼저 불너 더위팔기 달마지 해불 혀기,
 먼저 불려서 더위 팔기와 달맞이 햇불 켜기는,
흘너오는 풍속(風俗)이오 아히들 노리рода.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 설날과 정월 대보름의 풍속

반드시 읽어보자! 정철 '관동별곡'

1. 관찰사로 부임함(창평 - 한양 - 섬강,치악(원주))

江江湖호애 病병이 깊퍼 竹죽林林님의 누엇더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泉石膏)이 되어, 은서지인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關關東동八팔百백리니에 方방面면을 맞디시니,

((임금님께서) 8백 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아아,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없다)

延연秋추門문 드리드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바라보며,

(경복궁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알피 섰다.

(임금님께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平평丘丘驛驛역 물을 7라 黑흑水水슈로 도라드니,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여주]로 돌아드니)

蟾섬江江은 어디메오, 稚티岳岳악이 여기로다.

(섬강[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

2. 도내 각 고을 순회(소양강(춘천) - 동주(철원) - 회양)와 관찰사로서의 포부

昭쇼陽陽江江 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소양강의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인가(임금 계신 한강으로 흘러들겠지?)

孤고臣신 去거國國에 白백髮髮발도 하도 할샤.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매 (우국지정으로)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東동州州쥐 밤 계오 새와 北북寬寬관亭亭의 올라하니,

(동주[철원]의 밤을 겨우 새워(날이 새자마자) 북관정에 오르니,)

三삼角각山山 第데一일峰봉이 ㅎ마면 되리로다.

(임금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弓궁王왕 大대關關 터희 烏오鵲작이 지지괴니,

(옛날 태봉국 궁예왕의 대궐 터였던 곳에 까막까치가 지지귀니,)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난다, 물으는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淮회陽陽 네 일흠이 마초아 7틀시고.

(이 곳이 옛날 한(漢)나라에 있던 '회양'이라는 이름과 공교롭게도 같구나.)

汲급長당孺유 風풍彩치를 고터 아니 볼 계이고.

(중국의 회양 태수(太守)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급장유의 풍채를 이 곳 회양에서 다시 볼 것이 아닌가?)(선정 포부를 밝힘)

3. 만폭동 폭포의 장관

營營中등이 無무事스하고 時時節절이 三三月월인 제,

(감영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 때,)

花화川천 시내길히 楓풍岳악으로 버더 있다.

(화천(花川)의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行행裝장을 다 썰티고 石石徑徑의 막대 디퍼,

(행장을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百百川천洞동 겨티 두고 萬萬瀑폭洞동 드러가니,

(백천동을 지나서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銀은 7톤 무지개, 玉玉 7톤 龍龍의 소리,

(은같은 무지개 옥같이 희고, 고운 용의 꼬리 같은 폭포가)

섯돌며 썸는 소리 十十里리의 주자시니,

(섞여 돌며 내뿜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퍼졌으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렛소리(천둥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4. 금강대에서의 신선적 풍모

金金剛강臺臺 밧 仙仙鶴鶴학이 샷기 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春春風風 玉玉笛笛聲聲의 첫음을 썸듯던디,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縞縞衣衣의 玄玄裳裳이 半半空空의 소소 쓰니,

(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공중에 솟아 쓰니,)

西西湖湖 網網 主主人人을 반겨셔 넘노는 듯

(서호의 옛 주인 임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5. 진혈대에서의 조망

小小香香爐爐 大大香香爐爐 눈 아래 구버보고,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正正陽陽寺寺 스 眞眞歇歇臺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왔으니,)

廬廬 巖巖 眞眞面面 目目이 여기야 다 보는다.

(여산 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어와, 造造化化 翁翁이 현스토 현스할샤.

(아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 하면서도 뛰는 듯도 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니, 참으로 장관이로다.)

芙부蓉용을 고장는 듯, 白백玉옥을 못것는 듯,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東동溟명을 박차는 듯, 北북極극을 괴왓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하구나)

높홀시고 望망高고臺臺디, 외로울샤 穴혈望망峰봉이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여,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千천萬만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른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그 지조가 놀랍구나.))

어와 너여이고, 너 ㄱㄷ니 또 잇는가

(아, 너(망고대, 혈망봉)로구나. 너같은 높은 기상을 지닌(지조가 높은) 것이 또 있겠는가?)

6. 개심대에서의 조망

開開心심臺臺디 고터 올라 衆衆香향城성 바라보며,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萬萬二이千천峰봉을 歷歷歷歷히 혀여히니

(만 이천 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

(봉마다 맺혀 잇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맑고 깨끗한 저 산봉우리의 빼어남이여!)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들고자.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形形容용도 그지업고 體體勢세도 하도 할샤.

(생긴 모양도 각양각색 다양도 하구나.)

天塲地디 삼기실 제 自自然연이 되연마는,

(천지가 생겨날 때에(만 이천 봉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게 만들어진 듯하여 정답기도 정답구나!)

7.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덕 흠모

毗盧로峰봉 上上上頭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東동山山 泰태山산이 어늬야 높듯던고.

(동산과 태산의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魯魯國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天천下下하 엇씨하야 적답말고.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아!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공자의 호연지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네.))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가미 고이힐가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까?)

8. 화룡소를 보며 선정에의 포부를 다짐

圓圓通通골 7는 길 獅獅子峯봉을 츠자가니,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픽 너러바회 化化龍龍소 되여세라.

(그 앞의 넓은 바위가 화룡소(化龍沼)가 되었구나.)

千千年年 老老龍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마치 천 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같이)

晝晝夜야의 흘녀 내여 滄창海海히에 니어시니,

(밤낮으로 물을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風風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日雨우를 디련는다.

((저 용은)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陰陰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선정의 포부가 나타나 있다.))

9. 십이폭포의 장관

磨마訶하衍연 妙묘吉길祥상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외나모 빠른 ㄷ리 佛불頂頂臺臺디 올라하니,

(씩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千천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 두고,

((조물주가)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銀은河河水水슈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기티 플터이셔 뵈기티 거러시니,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어 놓았으니)

圖도經경 열 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산수도경에는 열 두 굽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만일, 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廬녀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하려니.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10. 동해로 가는 감회

山山中등을 미양 보라, 東동海히로 가자스라.

(내금강 산중의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로 가자꾸나.)

籃남輿여緩완步보하야 山山映영樓樓누의 올라하니,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

玲녕瓏능碧벽溪계와 數수聲성啼啼鳥鳥는 離니別별을 怨원하는 듯,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짖는 산새는 나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감정이입),)

旌정旗기를 썰티니 五오色색이 넘노는 듯,

(깃발을 휘날리며 오색 기폭이 넘나드는 듯하며,)

鼓고角각을 섯부니 海히雲운이 다 걷는 듯

(북과 나팔을 섞어 부니(풍악을 울리니) 바닷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鳴명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선을 빗기 시러,

(모랫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작자)을 비스듬히 태우고)

바다를 것터 두고 海히棠당花화로 드러가니,

(해변의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白백鷗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는.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11. 총석정의 장관

金金闌난窟굴 도라드러 叢총石석후명 올라하니,

(금란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白帛玉옥樓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옥황 상제가 거쳐하던 백옥루의 기둥이 네 개만 서 있는 듯하구나.)

工공倂슈의 성녕인가, 鬼귀斧부로 다드문가

(옛날 중국의 명장(名匠)인 공수(工倂)가 만든 작품인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야 六육面면은 므어슬 象상툃던고.

(구태어,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본 뒀는가?)

12. 삼일포에서의 사선 추모

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를 츠자가니,

(고성을 저 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丹단書서는 宛완然然연히되 四스仙선은 어디 가니.

(그 남쪽 봉우리 벵랑에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쓴 붉은 글씨가 뚜렷이 남아 있으나, 이 글을 쓴 사선은 어디 갔는가?)

예 사흘 머은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 거기나 가 잇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淸청澗간후명 萬만景경臺대 몇 고디 안뒀던고,

(청간정, 만경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서 앉아 놀았던가?)

13. 의상대에서 본 일출의 광경

梨니花화는 벌써 디고 楹동새 슬피 울 제,

(배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 슬피 울 때.)

洛낙山山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대에 올라 안자,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쯤 일어나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퇴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러 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다히 써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바닥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하더니.)

天塹中庭의 티쓰니 毫髮髮鬚을 헤리로다.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도다.)

아마도 靄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이백의 시구 인용).)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이백은 어디 가고 (간신배가 임금의 은총을 가릴까 염려스럽다는) 시구만 남았느냐?)

天塹地地間간壯장한 奇별 殊서히도 淸서이고.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14. 경포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 양속

斜사陽양 峴현山산의 磔특을 攄니볼와

(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밝아.)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下려가니,

(우개지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十십리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高터 다려,

(십 리나 뻗쳐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 같은.)

長당松송 울흔 小개 슬꺾장 淸터시니,

(맑고 잔잔한 호숫물이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 속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하구나.)

孤고舟舟解解纜纜하야 亭亭子子 淸히 올라가니,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江강門문橋교 너른 野野 大대洋양이 巨거로다

(강문교 너른 곁에 동해가 거기로구나.)

從從容容 淸하다 이 氣氣像像, 闊闊 闊闊 遠遠 淸하다 더 境境界界,

(조용하구나 경포의 기상이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계여.)

이도곤 7촌 더 또 어디 잇닷 말고.

(이 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잇단 말인가?)

紅紅粧粧 古古事事 淸히 淸히 타 淸히로다.

(과연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호사스런 풍류이기도 하구나)

江江陵陵 淸大대 都都 護護 風風 淸俗속이 淸히시고,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節節 孝孝 旌旌 淸門문이 淸히 淸히 버러시니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比比屋屋 淸可가 淸봉이 이제도 잇다 淸히.

(즐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줄 만하다는 요순 시절의 태평 성대가 이제도 잇다고 하겠도다.)

15. 죽서루(삼척)에서의 객수

眞眞珠珠館 竹篤西서樓루 五五+십십川천 낙린 물이

(진주관[삼척] 죽서루 아래 오십천의 흘러내리는 물이)

太태白백山산 그림재를 東東海해로 다마 가니,

((그 물에 비친)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옮겨)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觅의 다히고져.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王왕程程이 有有限한하고 風풍景景이 못 슬미니,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볼수록 싫증나지 않으니,)

幽유懷회도 하도 할샤, 客객愁수도 들 디 업다.

(그옥한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仙仙槎사를 띄워 내여 斗두牛우로 向향하살가,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 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仙仙人人을 좇조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사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을까?)

16. 망양정(울진)에서의 파도 조망

天천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울은말이,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빛근 하늘이니 하늘 빛근 므서신고.

((수평선 저 멀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갯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가득이나 성난 고래(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물을 블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銀은山산을 깎거 내여 六육습합의 낙리는 듯,

(은산을 깎어 내어 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천의 白백靄靄는 므스 일고.

(오월 드높은 하늘에 백설(파도의 물거품)은 무슨 일인가?)

17. 동해의 달맞이

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명하거늘,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기에,)

扶부桑상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해 뜨는 곳이 가까운 동해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千천丈丈 이 보이는 듯 숨노고야.

(상서로운 빛줄기가 보이는 듯하다가 숨는구나.)

珠翬簾縷를 고타 것과, 玉靑階계를 다시 쓸며,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어올리고 옥돌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셋별이 돌아 오를 때까지 곳곳이 앉아 바라보니,)

白백蓮년花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꽃 같은 달덩이를 어느 누가 보내셨는가?)

일이 도흔 世세계계 늑대되 다 뵈고져.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온 백성에게 은혜가 골고루 미치도록 선정을 베풀고 싶다.)

流뉴靄하酒주 7득 부어 들다려 무론 말이,

(신선주를 가득 부어 손에 들고 달에게 묻는 말이,)

英英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그 뉘러니,

("옛날의 영웅은 어디 갔으며, 신라 때 사선은 누구더냐?")

아미나 만나 보아 넷 기별 못자 하니,

(아무나 만나 보아 영웅과 사선에 관한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仙선山산 東동海히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하구나)

18. 꿈 속의 선연

松송根근을 베여 누어 풋증을 얼핏 드니,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얼핏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날드려 날온 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선이라.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 나라의 참 신선이라,)

黃황庭庭經경一일字즈를 엮디 그릇 닐거 두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쏘오는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 잔 머겨 보오.

(잠시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히水슈 부어 내여,

(북두 칠성과 같은 국자를 기울여 동해물 같은 술을 부어)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저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和화風풍이 翳습翳습하야 兩兩腋익을 추혀 드니,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를 추켜올리니,)

九구萬만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아득한 하늘도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고로 讌화,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億억萬만蒼창生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터 만나 또 한 잔 欸갯고야.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말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空공中中 玉옥蕭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통소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렵잖아네)

나도 잠을 깬여 바다를 구버보니,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

(깊이를 모르는데 하물며 가인들 어찌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만落낙의 아니 비친 더 업다.

(명월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곳이 없다)